

# 시대의 삶 껴안은 '몸' 소재로 현시대 성찰

## CULTURE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여수 경도에서 태어나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행. 서울의 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몇 년간 활동을 펼치다 1991년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에서 1년여 머무르며 1992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후 경도로 들어가 고향의 바다와 함께 벗하며 드로잉 작업을 펼쳤다.

이 드로잉 작업은 훗날 작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몸의 미학'의 첫 출발점이 된다. 드로잉에는 고향 선배인 손충렬이 등장하고 버려진 바다 부유물을 오브제로 작업을 하곤 했다. 몸의 모티브로 고향 여수에 머물며 작업을 해온 박치호 작가가 그다.

박 작가는 다른 동료처럼 광주로 올라와 대학을 다닌 친구들과는 달리 서울로 상경하면서 광주에는 별로 아는 이 없는 도시로 남겨졌다.

작업을 하는 내내 특별한 전시 인연을 맺지 못하던 그가 1992년 서울 개인전 이후 33년 만에 광주에서 처음 전시를 마련한다. 지난해 서울과 호주 전시 전후 광주에서 전시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제11회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4월 1일 개막해 27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붉은 몸, 붉은 바다'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출품작은 신작 위주로 13점. 그의 화풍에는 50대 후반 정도의 몸이 등장한다.

화자의 적극적 의견이 개인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전시에 '재'라는 작품을 한 점 출품했다. 그냥 출품한 것은 아니고 향후 재 작업을 해보기 전에 관람객에 선을 보이고 판단을 해볼 요량인 듯하다.

거대한 몸의 형상으로 삶의 송고한 서사를 담아내는 작가는 여수에 내려온 이후 바다와 함께 살며

여수 경도서 작업 박치호 전시 열려  
광주 예술공간 집서 내달 1일부터  
전시대담·'GB작가토크' 잇단 진행



예술공간 집에서 작품을 설명 중인 박치호 작가.

체화된 삶의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작품들을 추구해 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기념비적 모습으로 상징화한 거대한 인간 군상을 그린 작품들을 출품해 선보인다. 실제의 인물보다 더 크게 그려진 인물들의 거대한 크기는 작가가 생각하는 인간의 송고함의 크기로, 더 폭넓게 인간에 대해 성찰해 간 작가의 신작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빅맨, 두상, 망각, 기억, 상처, 몸, 등 박치호 작가의 작품세계를 상징하는 단어들은 모두 인간 혹은 삶으로 귀결된다.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이자 시대를 성찰해 가는 한 인간으로, 작가인 개인이 바라본 인간의 모습들을 그려왔으며, 이번 전시에서 더 깊이 축적돼 가는 작가의 사유를 짚어 느껴볼 수 있다. 전시 타이틀의 '붉은 몸'은 저녁 노을의 붉은이자, 삶의 시간이 더 성숙 되어감이며, 인생의 저녁으로

더 깊은 절대 고독의 순간을 맞이하는 인간의 심리 등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단어다.

박 작가는 '바다'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을 바라보며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까지 삶의 서사를 담아왔다.

지난 2022년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였던 'BIG MAN: 다시 일어서는 몸'에서 거대한 몸의 형상은 많은 이들에게 박치호 작가의 작품세계를 각인하게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더욱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는 인간을 그리고자 했던 작가의 고민이 깊게 반영된 작품을 볼 수 있다.

하나하나의 인간에 더 집중했던 작품에서 나아가 '붉은 몸'의 몸들은 시대의 삶을 껴안은 몸으로 더 응징하고, 더 거대한 몸으로 인식된다. 몸을 비취내는 빛과 강렬한 어둠이 내려앉은 배경은 한 개인의 몸이 아닌 시간이 축적된 모든 인간의 삶을 대변하

는 듯하다.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박치호 작가는 삶의 내면을 사유하고 절대 고독의 인간에 대해 집요하게 매달리며 '붉은 몸'이 상징하는 몸을 그려가 고사했다. 한 개인의 '몸'에서 나아가 시대를 상징하는 '몸'으로, 더 큰 세계를 압축하고 포괄해 나가는 과정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작품이 주는 거대한 울림과 웅장함은 작가의 작품 제작 방식도 큰 몫을 한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작가는 재료의 한계를 넘어서서 독자적 제작 방식을 구축했다. 아크릴 안료를 린넨 천 위에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마치 시간을 쌓아 올리듯 한 걸, 한 걸 쌓아 올린 색들은 화면 아래 깊이 잠잠하며 묵직하고도 웅장한 작품의 깊이를 더해준다. 3~4m에 달하는 대형 캔버스에 비현실적으로 커다란 인간의 몸과 마주하며 삶의 깊이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작가&철학자의 대담'도 진행된다. 작가론으로 함께 한 허경 철학자와 함께하는 대담으로, 박 작가의 작품세계를 철학적 관점으로 해석해 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박치호 작가는 전남, 서울, 호주 등에서 총 10회의 개인전을 진행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추진위원장, 손상기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맡아 지역의 미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시대담도 마련된다. 대담은 4월 1일 오후 4시이며, 14일에는 광주비엔날레에 시작하는 'GB작가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은 4월 1일 오후 6시.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Torso'



'붉은 몸'

## 성악가 63인이 선보이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시립오페라단 기획공연...내달 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푸치니·모차르트·베르디 등 대표 아리아 합창곡 선사

광주를 대표하는 성악가 63인이 한자리에 모여 오페라의 정수를 선보인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2025 기획공연 '오페라 갈라 콘서트 60 Stars'가 오는 4월 5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웅장한 하모니, 깊이 있는 해석과 함께 세기의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솔리스트 63인이 푸치니, 모차르트, 베르디, 비제 등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들의 대표 아리아와 합창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은 감미로운 소프라노 아리아 'O mio babbino caro'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격정적인 테너 아리아 'Nessun dorma'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웅장한 합창곡 'Va pensiero'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등 오페라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곡들로 구성된다.

또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4월의 노래' 등 클래식과 가곡이 조화를 이루며 풍성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준비한다.

각 곡의 배경과 감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관객들이 음악에 더욱 몰입하고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장은 광주시립합창단 지휘가 합창지휘를 맡고, 피아니스트 강경실과 강경진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최철 예술감독은 "대중이 사랑하는 가곡과 오페라 대표 합창곡 등 세기의 명곡 가득한 무대를 준비했다. 63인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감동과 전율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 2025 기획공연 '60 Stars'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입장료는 2만원. 김다경 기자 alsqsd19@gwangnam.co.kr



광주시립오페라단의 2025 기획공연 '오페라 갈라 콘서트 60 Stars'가 오는 4월 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월드 클래식오페라 시리즈' 공연 모습.

## 바쁜 일상 멈추고 예술로 마음치유 해볼까

'ACC 상반기 마음치유교육' 4~6월 운영...공공미술작품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전 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오는 4~6월 문화경보원 문화교육실5에서 'ACC 상반기 마음치유교육'을 총 16회 추진한다.

ACC는 지난 2022년부터 공공미술작품을 활용한 ACC 특화 예술치유교육을 개발·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일상에 쉽고 환기가 필요한 일반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상반기 교육은 4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 상황의 기록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쓰기치유교육인 '기록과 표현을 통해 감정과 마주하기'와 컬러링 (coloring)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이완반응 촉진에 도움을 주는 색채치유교육인 '색을 통해 나를 디자인하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 속 의미를 찾아보는 '새롭고, 의미있게! 생각을 전환하기'로 구성했다.

먼저 '기록과 표현을 통해 감정과 마주하기'에서는 ACC 공공미술 설치작품인 왕두 작가의 '승리' (2015)와 나의 기억과 감정을 상징적인 글쓰기로 표현한다.

'색을 통해 나를 디자인하기'에서는 ACC에 설치된 마탈리 크라셋 작가의 '리플렉시티' (2015) 작품과 연계해 공간과 나의 상호작용,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색을 통해 여러 층위로 구조화하는 과정을 경험해본다.



'새롭고, 의미 있게! 생각을 전환하기'에서는 최정화 작가의 'Heavenly Heaven (2015)' 작품과 연계해 일상사물(플라스틱)을 쌓고, 배열하는 작업방식을 활용한다. 일상에서 별다른 쓰임 없이 한쪽에 치워둔 재료들의 '의미부여'를 통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체험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gwangnam.co.kr

## 지구 환경 문제 경각심 일깨우다

추순정 개인전 오늘부터 광주예당

광주예술의전당은 지구 환경 보호 메시지를 유효하게 담아낸 한국화가 추순정의 개인전을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당 내 갤러리에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타이틀로 진행한다. 출품작은 회화 30여점.

도시와 자연 생태계의 불균형한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오랜 시간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작업을 지속해온 추 작가는 이번 여덟 번째 개인전에서는 환경오염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주목하며, 예술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작품에 담아낸다.

작가는 일상이 돼 버린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페트병과 과자봉지 같은 인간의 소비품을 물고 있는 예가리를 등장시킨다.

이는 현대 사회의 환경오염에 대한 모순과 갈등을 상징하는 동시에 무더기로 쌓인 옷들은 과잉 소비를 대변하는 패스트패션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유의 풍자와 유머를 통해 소비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데 치중한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연보호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방관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메시지를 화폭에 투영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소비의 환각'

작가는 "관람객들이 예술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감상하며 자연과 환경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실천을 다짐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순정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 서울과 광주 등에서 개인전 7회와 기획전 및 단체전 200회 등에 출품했으며, 한국미술회 광주지부, 자연보호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방관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메시지를 화폭에 투영하고 있다.

## 전남문화재단, '남도예술은행 in 아트페어' 공모

전남·광주 갤러리 및 작가 대상...내달 15일까지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가할 갤러리와 전남 작가를 지원하는 '남도예술은행 in 아트페어 참가지원' 사업을 오는 4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 판매 역량을 갖춘 갤러리를 대상으로 전남 작가들의 작품을 60% 이상 구성, 전문적으로 전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전남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갤러리 참가자격은 작품 전시·유통·판매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전남도 및 광주시 소재 갤러리로 최근 3년간 아트페어 5회 이상 참가 실적 또는 전년도 20점 이상의 작품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작가 발굴을 위해 갤러리에서 구성된 작가 외, 전남도 출신(출생·거주·소재 학교 졸업)으로 미술관련 학과 졸업 또는 전시 참여 10회 이상 참가 실적이 있는 작가도 별도로 모집해, 선정 갤러리와 매칭 후 아트페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결·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남도사이버갤러리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모 페이지에 아트페어 참가작품 이미지 등록 및 지원신청서, 실적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4개 갤러리가 '상하이아트페어', '뱅크아트페어' 등 국내외 유명 아트페어에 참여해 작품 36점(7445만원)의 판매 성과를 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gwangnam.co.kr